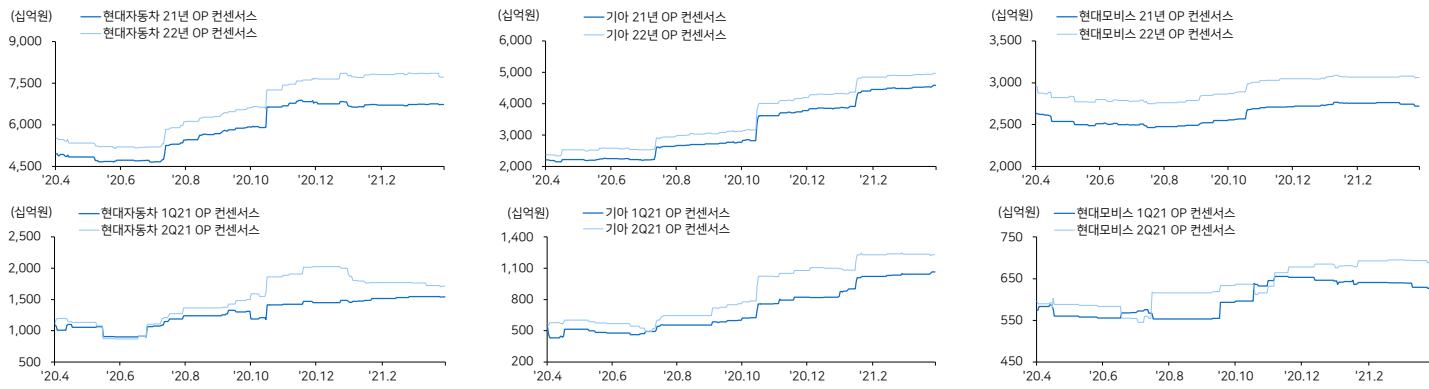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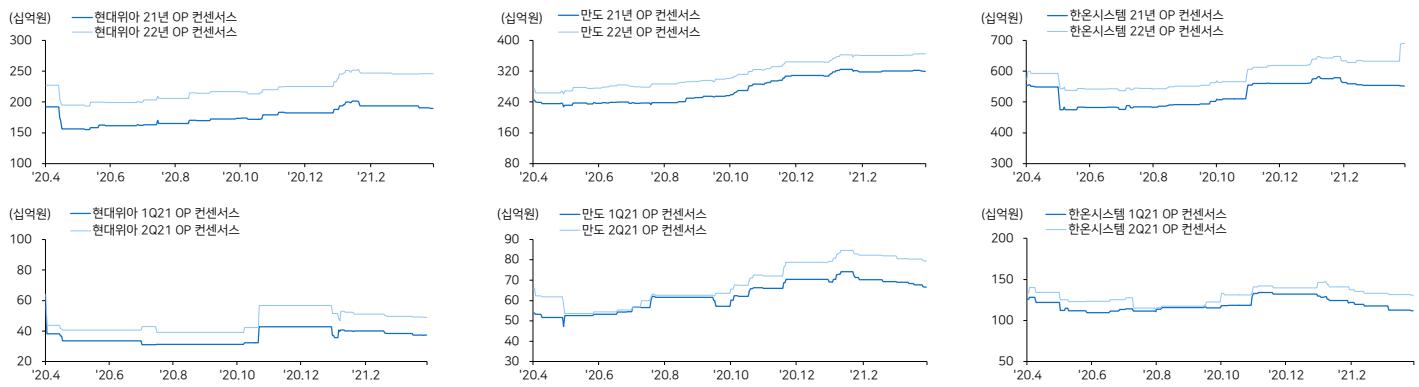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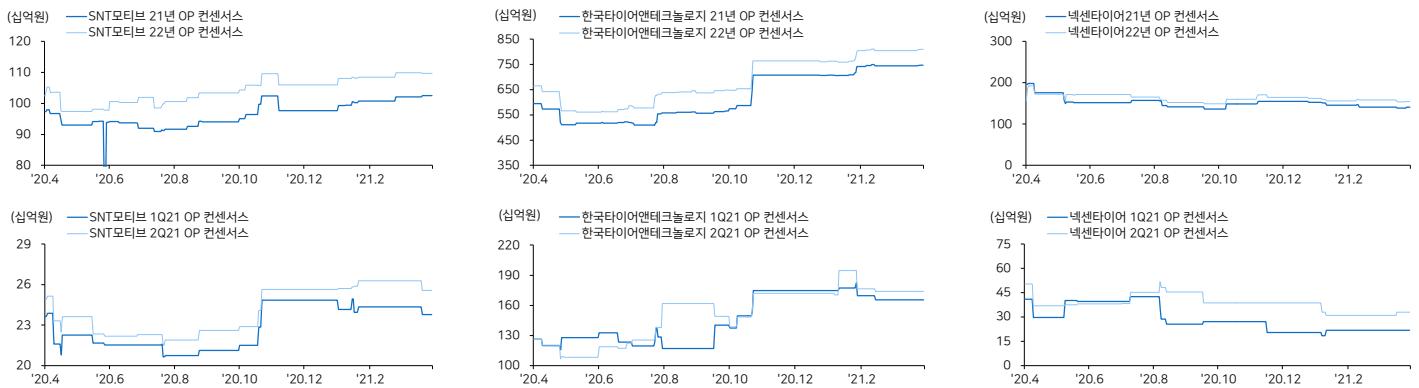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기아, 러시아서 최고 2.2% 가격 인상…수익성 확대 (The GURU)

기아 러시아법인은 11일 현지 차량 판매 가격을 조정하여, 모델 및 구성에 따라 0.5~2.2% 인상하며 최고 5만 루블(한화 약 72만원)까지 인상함. 현지 판매가 인상은 올해 4번째로 지난 1월부터 매월 가격을 인상함.
<https://bit.ly/3dUoWVC>

중 베이징서 "2025년까지 수소차 1만대 보급"…현대차 '대형호재' (The GURU)

중국 베이징시가 2025년까지 수소차 1만대 이상을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74개를 짓겠다는 중기 목표를 발표함. 또 이를 위해 2023년까지 하루 50t, 2025년 하루 135t에 이르는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수소 생산·공급 계획도 추진키로 함.
<https://bit.ly/3mHgZu>

한국자동차부자 차량용 반도체…자율주행 R&D 캠퍼스 아산에 건립 (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충남도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차량용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이 집적된 아산 일대에 차량용 펌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율주행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https://bit.ly/3tcJNdi>

중 전기차업체 샤오펑, 자체 자율주행칩 연구·개발 중…연말 출시 예정 (글로벌비즈)

샤오펑 허사오펑 CEO는 '20년 4분기 커퍼런스콜에서 "21년부터 자율주행 관련 하드웨어 등의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관계자는 "자율주행 칩 개발은 수개월째 추진 중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 출시할 것"이라고 말함.
<https://bit.ly/32aIUR>

현대차, UAM사업 더 카운다…美 우주항공 인력 대거 채용 (전자신문)

현대차가 미국에서 UAM 전문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함. 특히 R&D에서 다양한 직군을 세분화해 모집하며, 기체 설계 역량을 넘어 실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운항 기술과 자동차 수준의 대량생산기술 확보까지 추진하는 전략으로 해석됨.
<https://bit.ly/3uJ26XJ>

만도, 후부품업계 최초 ESG 채권 발행 나선다 (매일경제)

만도는 1500억원 규모 ESG 채권을 오는 22일 발행하기 위한 수요예측에 나섰으며, 14일 진행되는 수요예측에서 흥행하면 최대 2500억원 규모로 증액해 발행할 예정. ESG 채권 발행을 계기로 만도의 친환경차 사업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
<https://bit.ly/3mNrTLS>

테슬라, 모델3·모델Y 美 가격 또 인상…이번엔 50만원 ↑ (The GURU)

12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모델3과 모델Y에 대한 가격을 일제히 500달러 인상함. 테슬라가 이를 모델에 대한 가격을 조정한 대표적인 이유는 수요 급증이며, 시장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해서 변할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3wNWyDv>

벤츠 테슬라 전기차 '주행거리 전쟁'…목표는 700km (매일경제)

벤츠는 16일 월드 포리미어 행사를 통해 자사 첫 전기 세단인 'EQS'를 공개한 뒤 8월부터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는 최근 EQS가 108kwh 배터리팩을 탑재해 1회 충전 최대 770km를 주행 가능하다고 밝힘.
<https://bit.ly/3g4EzwA>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